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인려* · 이선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단국대학교 공예과

Formative Character of Korean and Japanese Dress Design in Modern Fashion

In Ryu Choi* and Seon Hee Le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Ceramic & Fiber Arts, Dankook University

(2007. 2. 9. 접수 : 2007. 10. 30. 채택)

Abstract

As the traditional style is treated as one of the important themes in fashion recently, how to apply the formative character in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dress to modern fashion is searched through actual analysis of photograph material.

Both design formative elements were confirmed by clothing and fashion department majors through visual data so that 20 pieces of them were selected as final analysis object.

Korean traditional dress form in modern fashion emphasizes curvaceousness as plane division. On the other hand, that of Japanese shows straight line, layered, belt, big look through up & down connection style. Color in Korean traditional dress prefers white and original color and modern fashion displays the natural beauty through harmony of similar colors; that of Japanese based on natural color such as persimmon color cherishes natural beauty and implicit moderation showing harmony of various original color with brilliance and neutral color. While texture in Korean traditional dress was fine and exquisite, that of Japanese preferred coarse and tactile ones. In motif, Korea was natural and geometric but Japanese variously used complex and geometric ones.

Likewis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formative character in Korean and Japanese modern fashion affects the modern dress format as new aesthetic sense and takes on more complicated and subtle aspect in basic form, not just use so far.

Key words: formative(조형성), silhouette(실루엣), color(색채), texture(소재), motif(문양).

I. 서 론

전통 복식은 한민족의 정서를 함축하는 상징물인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어 패션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이미지 발상을 위한 대상으로 활용할

* 교신저자 E-mail : shfiber@hanmail.net

가치가 매우 높다.

복식(服飾)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¹⁾ 최근 패션계에서는 민속풍이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전통미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통 복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그 민족의 감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형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²⁾.

1980년대의 다원화·개방화·세계화·개성화 흐름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은 패션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1980년대 이후의 패션은 서양 문화의 모티프로 전개되던 패션 테마의 흐름에서 오리엔탈 문화를 패션 디자인의 모티프로 삼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패션계에 동양계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한층 더 다양한 유행 현상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도 현대 패션에서 민속 복식은 세계 패션의 한 장르로 부각되었고, 민속 복식 중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국적인 느낌이 강렬한 농양의 복식이다.

세계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는 농양 복식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은숙³⁾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복식 디자인의 이미지를 나라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정성혜⁴⁾는 1980년대 이후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김찬주, 장인우⁵⁾는 한국 현대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 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 패션에 한국적 전통미를 표현하고자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국적 디자인 전개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로는 전통 복식에 관한 연구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전통 복식과 직물이 현대 패션에 끼친 영향을 세부적인 조형성으로 나누어 다룬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연구 대상을 한국과 일본으로 한정하였으며, 디자이너 작품을 함께 제시하면서 현대 패션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의 조형 요소가 현대 패션에 어떻게 활용·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 연구가 향후 세계 전통 복식의 특성을 표현한 패션 상품 기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패션 산업의 해외진출 시 보다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전통 복식의 조형 요소 분석을 위해 이론적 고찰은 국내외 선행 연구 및 관련 전문 서적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실증적 내용 분석은 패션 정보지에 게재된 17명의 디자이너 작품을 참고로 하였다. 양국의 조형 요소 분석을 위해 120점을 수집하여 의류학 및 패션 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형태, 색채, 소재 및 재질, 문양 등으로 분류하여 20점을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징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디자인 조형 요소를 형태, 색채, 소재 및 재질, 문양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형태

형태(形態)는 복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축약적이며, 가시적으로 지각되는 구체적인 것이다⁶⁾.

1) 한국

한국의 복식은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가장 큰 특징을 이루는데, 한복의 각 부분에 표현된 곡선은 저고리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⁷⁾. 구

1)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 3.

2) 금기숙,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5권 19호 (1992), p. 29.

3) 이은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6권 1호 (2004), p. 25-33.

4) 정성혜,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25호 (1995).

5) 김찬주, 장인우,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48권 (1999), pp. 5-24.

6) 금기숙, *조선복식미학*, (서울: 열화당, 1994).

조적 곡선은 저고리의 깃, 도련, 배래, 살 등에서 유연한 곡선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곡선은 실용성이거나 기능성보다는 미실용적인 심미적 욕구에 의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복식에 나타나는 선은 유연한 곡선, 완만하고 부드러운 추구로 한국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낸다.

진태옥(Jinteok)의 작품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평면분리형의 Part to whole의 표현이 다소 많았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에서 치마, 저고리의 분리형이 내재되어 작용하는 복식에서의 조형 감각으로 그 결과 상하 분리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기모노는 평면통합형의 Whole to part형이 강한 특성을 보였다.

<그림 4>의 이영희(Lee Young Hee) 작품에서는 서양 의복이 인체를 의식하여 구조적인 형태의 복식이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동양복식의 카프탄형으로 그 내부에 다마나나 술기가 적어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의 비구조적인 형태의 속성이 양국의 특성으로 현대 패션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착장방식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복식에 겹쳐 입는 레이어드(Layered)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방한과 의례적 용도로써 성장의 위업을 나타내기 위해 포근 덧입는데 이때 깃의 여백은 안저고리가 보이지 않도록 덧입는데 반

해 일본은 내의의 깃이 뚜렷이 보이도록 하여 겹쳐 입는 장식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곡선적 이미지, 평면분리형의 특징을 보였고, 일본에 비해 구조적 형태와 단일차용이 많았다.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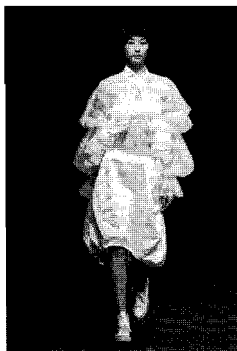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 복식인 기모노(着物)는 직선적 형태를 이루며 과장된 크기 즉, 빅 룩(Big Look)의 형태로써 다양한 체형에 맞는 패턴을 필요로 하는 서양 복식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⁷⁾.

기모노의 소매는 길고 넓으며 단추나 끈이 없이 옷자락을 겹쳐서 오비(帯)라는 폭넓은 띠로 허리를 고정한다. 오비는 기모노의 착용과 형태에 있어 심미적인 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모노는 방한과 예상용으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었으며, 이와 같은 레이어드(Layered) 형태는 12겹을 겹쳐 입었을 때 안쪽 깃이 보이도록 겹쳐 입음으로써 깃 부분, 소매부리, 치마 아래단 등에서 여러 선들이 층층이 포개어져 표현되어 풍성한 형태감을 강조하고 있다.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경우, 기모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편안함과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를 부여하는 허리선이 강조되지 않는 상하연결형의 형태 크기가 다소 과장된 의복 우선형이 현대 패션에서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디자이너 작품의 디자인 철학은 기모노 정신에서 비롯된다⁸⁾(그림 3).

일본 전통 복식에서의 과장된 복식 형태와 좌, 우 비대칭적인 디자인의 복식 형태가 직선 형태의 '빅 룩'으로 나타나고, 비대칭적인 디자인의 미학으로 새로이 표현되어진 것이다. 직선적인 실루엣에서 보이는 부드러운 드레이프의 표현 역시 일본 복식의 이미지로써 <그림 4>의 펜디(Fendi)의 봉컛트는 기모노 형태의 깃, 소매의 크기와 길이의 풍성함이 일본 복식의 특징 중의 하나인 '빅 룩'을 응용하여 현대 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5>의 작품에서 이



<그림 1> Jin te ok (07 S/S, Seoul Collection). <그림 2> Lee Young Hee (07 S/S, Seoul Collection).

7)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p. 58-65.
 8) 황춘섭, *세계 전통복식*, (서울: 수학사, 2001), p. 155.
 9) 황춘섭, *Op. cit.*, p. 150.



〈그림 3〉 Yohji Yamamoto 〈그림 4〉 Fendi (05 F/W, (01 S/S, Gap Press, Vol. www.firstview.com). 32 p. 18).

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기본적으로 플리츠(Pleats)라는 소재를 통해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주름을 잡은 후 옷을 재단하는 방법과는 달리 실제 사이즈보다 큰 크기로 형을 재단하고 봉제한 후 플리츠 가공한 소재로 형을 만들고, 그 위에 기능을 더하여 소재와 형이 유기적으로 얽힌 새로운 개념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였다.

〈그림 6〉의 의상을 선보인 Junko Koshihino(Junko Koshihino)는 파리 컬렉션에서 기모노 형식의 자켓에 오비(帯)와 오비자메(帯縮)로 일본풍을 표현하였다.



〈그림 5〉 Issey Miyake (*Making Thing*, p. 80).



〈그림 6〉 Junko Koshino (00 F/W, www.firstview.com).



〈그림 7〉 Lim Hyun Hee (07 S/S, Seoul Collection).

일본은 직선적 이미지가 강한 상하 연결의 평면 통합형과 빅 룩이 특징이었으며, 한국에 비해 비구조적 형태와 레이어드 형태가 많았다. 이러한 전통 복식의 형태가 현대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색채

색채는 복식의 형태와 함께 그 형상을 구체화하며 의복에 이미지를 부여하고 착용자의 취향을 단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1) 한국

한국인의 색채 의식은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첫째, 단청, 불화 등에서 보이는 원색을 사용한 보색의 배색은 색동의 배색이 이것에 속하며, 이러한 보색의 배색이나 다색배색의 의복은 평상적인 의복이 아니며 특수한 성격이 부여된 상징성, 명절, 의례적 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¹⁰⁾. 둘째, 금욕주의적 색채 의식으로 원색을 피하고 부채색을 사용하였으며, 옥색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백색은 본래 소재(素色)으로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백색의 사용은 꾸미지 않는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림 7〉의 임현희(Lim Hyun Hee)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유사색과 보색의 조화면에서 비교적 보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 복식의 색채는 부채

10)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p. 128, 130.

색과 원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색의 조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미로써 한국적 성서를 표현하여 현대 패션에 활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색채는 백색과 밝은 소색을 중심으로 한 고명도가 특징이었고, 일본에 비해 다색 대비, 보색 대비가 많아 나타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색에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색채들이 있는데, 아스카(飛鳥),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우아한 기풍의 색이, 가마쿠라(鎌倉)시대에는 강직을 상징하는 색상이, 무로마치(室町)시대에는 '무채(無彩)의 표정'이 있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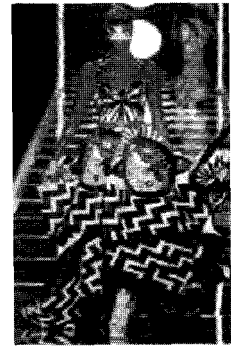
일본 전통 복식의 문양에 나타난 색채는 10세기 말경부터 15세기까지 청색계의 색상이 승리의 색으로 위력을 가지면서 유행하였고¹²⁾,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선종에 대한 숭배의식에서 기인한 차분한 부채색은 일본의 중세기간의 지배계층이었던 부사계급인 사무라이의 근검, 절제의 정신과도 조화되는 일본의 전통 이미지를 내포하는 색채이기도 하다. 모모야마(桃山)시대에는 세련되고 우아한 미의식보다는 소위 무가정신 그대로 명쾌한 것을 취함에 따라 황금색을 선호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 복식에서 가장 특색 있는 미적 감각은 헤이안(平安)시대의 주니히도에(十二単)을 중심으로 형성된 색채 미학으로 사계절의 꽃과 나무 등과 같은 풍물을 복식의 문양으로 사용하여 일본의 복식사상 가장 아분답고 호화로운 복식미학을 형성하여 색을 겹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습색(襲色)의 배색미를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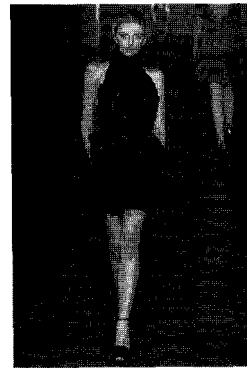
<그림 8>의 작품에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에도(江戸)시대 '주니히도에(十二単)'의 레이어드에 의한 '가사네이로메(襲色目)'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현대 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림 9>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작품에서 일본은 흑색과 백색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 부채색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기하학적 문양과 동물문양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그림 8> Christian Dior (05 F/W, www.firstview.com).



<그림 9> Christian Dior (99 F/W, Fashion News Vol. 53 p. 122).



<그림 10> YSL Rive Gauche (07 S/S, Seoul Collection).

10)에서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일본의 선호 색상인 감(紺)색을 사용하여 자연색 계열을 명도만을 달리 조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유사색 조화 사용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색채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기초를 둔 습색의 배색미와 무채색과 저채도, 저명도가 특징으로 한국에 비해 유사색 조화가 많이 나타났고 색상에 의한 미적 감각이 강조되어 현대 패션에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재 및 재질

복식의 재질감을 나타내 주는 각종 직물들은 직물

11) 김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 104.

12) 문광희, "일본의 服色에 있어서 청색과 藍染의 發達考." 동지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권, p. 115.

코유의 특성과 함께 독특한 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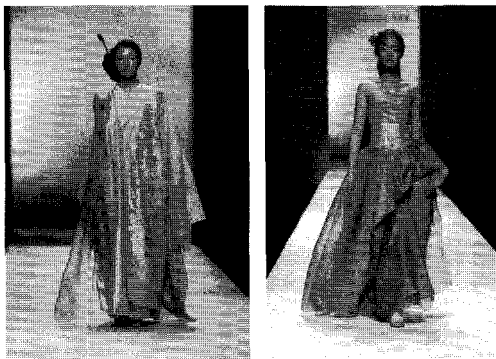
1) 한국

한국 전통 복식의 소재로 주로 서민들에게 애용되었던 직물은 면, 마, 삼베로써 마직물은 울이 굵고 거친 느낌으로 인하여 직물의 표면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모시는 한국의 미적 정서를 표현하는 재료로써 애용되었다. 또한 광택이 있고 촉감이 부드러운 명주 역시 많이 사용되었는데, 우리 민족은 굵고 섬세한 직물을 농경하여 명주를 가장 이상적인 직물로 인식하였다¹³⁾. 광택이 있고 촉감적인 부드러움을 주는¹⁴⁾ 명주 외에도 감사나 노방과 같은 투명한 재질감으로 은은한 미적 특징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림 11>에서 이영희(Lee Young Hee)는 한국 복식의 소재로 노방과 모시를 깎았던 것과도 같은 양상으로 굵고 매끈하여 은은히 비치는 재질을 통하여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복식은 직물의 종류나 직조방법에 따라 거칠면서도 소박한 표면 질감을 갖는 소재가 애호되었는가 하면, 정교하고 섬세한 질감의 소재가 애호되기도 하였다.

2) 일본



<그림 11> Lee Young Hee (07 S/S, Seoul Collection).

일본의 소재는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텍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자연미를 중시하고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이것을 하나의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주로 면, 마, 모 등의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더욱 친밀감을 주었다. 또한, 새의 날개처럼 얇고 가벼운 소재를 이용하여 래핑(Laping), 폴딩(Folding), 레이어링(Layering)하는 방법으로 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부로마치(峯町)시대 이후로 중국과 외국에서 화려한 견(絹)이 수입됨으로써 견으로 만든 고소데(小袖)에서 다양한 직조법을 통한 표면 질감이 표현되었다. 표면에 회화나 프린트가 삽입되고 동남아시아와 인디아로부터 들어온 염색직물 등이 표면 기술에 기여하게 되었고¹⁵⁾, 견의 직조 기법에는 위사의 굵기를 달리 하면서 평조직을 기본으로 한 철직(綴織), 당직(唐織), 후판(厚板), 주진(縮珍), 축면(縮綿) 등이 있다.

16, 17세기 모보야나(桃山)시대에는 근세의 직물 문화가 발전하였던 시기로, 자수(刺繡)에 급과 은의 접박(摺箔)을 병용한 봉박(縫箔)은 이 시대의 염직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해안지방의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누비기, 덧붙이기 성행하였고¹⁶⁾ 퀴팅(quilting)과 패치워크(Patch work)를 이용한 의상을 제작함으로써 부드럽고 매끈한 질감보다는 투박하고 거친 재질감이 표현되었으며, 여러 장의 천 조각을 이을 때 사시코(刺子) 기술을 사용하여 작고 흰 누빔 바느질과 함께 기능성의 목적 외에도 즐겨 애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2>에서 이세이 미야케는 자연 소재와 색조를 많이 이용하였고, 마 직물을 사용한 재질감이 그대로 보이면서 형태보다 소재가 우선시 되는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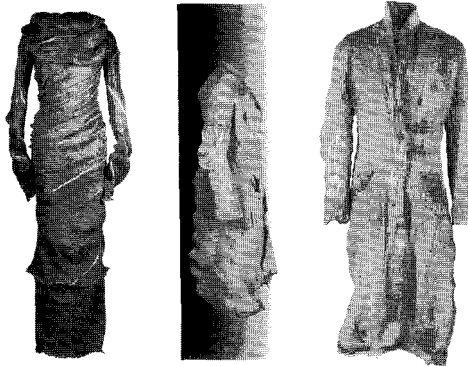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일본 복식 소재에서 표현되는 재질감은 투박하고 양감이 있는 직물을 선호하며 다양한 직조법을 통해 풍부한 표면 질감을 표현하여 현대

13) 금기숙, *Op. cit.*, p. 188.

14) *Ibid.*, p. 190.

15) Dale Carolyn Gluckman & Sharon Sadako Takeda, *When Art Became Fashion: Kosode in Edo Period Japan*, (Weatherhill Inc.), p. 74.

16) Leonard Koren, *New Fashion in Japan*, (Tokyo: Kodansha, 1984), p. 54.



<그림 12> Issey Miyake (Making, Thing, p. 123).

패션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양

인간의 내재적인 조형 의지의 표출로써 복식에 시문된 문양은 자연 감성을 동반함으로써 그 미적 특징을 갖는다. 문양은 사용하는 사람의 감정이입으로 각 시대나 민족 고유의 조형양식(造形樣式)을 창조한다¹⁷⁾.

1) 한국

한국 문양의 소재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구름분과 수파문양(水波紋樣), 산악문양, 마위문양 등이 있다. 식물문양 가운데 사실적 문양으로는 고개를 상징하는 연화, 사군자 중의 하나로써 야인의 설개를 뜻하는 국화와 부귀의 의미로 사용된 모란문양이 있으며,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석류문양 등이 있다. 이외에도 난초, 대나무, 매화문양 등이 있다.

동물문양으로는 실존하는 동물의 문양과 공상적인 동물의 문양으로 나눌 수 있다. 모티프는 학, 거북, 사슴 등은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용(龍), 봉황, 거북, 사슴, 거린 등은 사령수(四靈獸)라 하여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상징적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이 밖에 한국의 호랑이문양은 그 용맹성으로 인해 무관의 흉배에 사용되었다.

기하학적 문양으로는 활옷이나 원삼저고리의 소

매부리 등에 다른 천을 사용하여 가장자리에 자수(刺繡)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부분적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으로¹⁸⁾ 음양의 사상에서 연유된 태극문양, 하늘의 운분의 조형 신리에서 발달된 아자문양(亞字紋樣), 울동감있는 연속적 곡선의 문양인 와선문양(渦線紋樣) 등이 있다¹⁹⁾.

이러한 한국 복식에서 직물문양의 표현 방법으로는 주로 자수나 금박을 이용하며, 문양의 장식 부위는 복식의 전면에 하는 경우와 일부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복식 전면에 문양을 배치하는 예는 견직물에 행해지는 직문(織紋)과 전면에 수를 놓아 장식하는 활옷을 들 수 있다. 직문(織紋)은 색의 변화가 없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

한국 복식에서 사용된 문양이 자연문양이 대부분이고 문양의 종류가 일본에 비해 제한적이며 개개의 문양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3>의 박재원(Park Jae Won)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조각보문양, 떡살문양, 분살문양 등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박항치(Bakangchi) 작품에서는 한국문양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꽃문양을 위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14).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은 꽃문양을 위주로 한 자연문양과 자수 기법이나 금박을 이용하여 조각보부



<그림 13> Park Jae Won (07 S/S, Seoul Collection).



<그림 14> Ba kang chi (07 S/S, Seoul Collection).

17)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1994), p. 12.

18) Alan Kennedy, *Japanese Costume: History and Tradition*, (Paris: Adam Biro, 1990), p. 28.

19) 최세환, *Op. cit.*, pp. 31-32.

니, 떡살무늬 등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한국의 전통미를 표현하였다.

2) 일본

일본의 문양은 동양에서 보기 드문 기하학적인 부녀와 자연의 동, 식물이나 풍경을 모티프로 한 자연문양, 생활 주변의 물품을 주제로 한 비자연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추상적 문양으로 파도분양, 귀갑문양(龜甲文樣), 어망 그리고 문자문양 등이 있다. 파도문양은 일본 회화(繪畫)에서도 많이 쓰인 문양으로 사실적 표현이 아닌 양식화된 장식적 모티프로 사용되었으며 복식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기모노(着物)에 나타난 자연분양은 당초문양(唐草文樣), 목단문양(木壇文樣), 동물문양(動物文樣), 화조문양(花鳥紋樣), 화충문양(華蟲紋樣) 등이 있으며, 동물문양을 직선적으로 양식화시켜 표현한 것도 나타나고 있다.

헤이안(平安)시대 후기부터 에도시대까지 전승되어 온 길상의 의미로 경사나 축하의 글을 분양 가운데 배치하거나, 문자 자체를 분양으로 차용하기도 하여 지적인 요소로서 때로는 부드럽고 울동적인 문자의 곡선을 연결한 문자 자체를 분양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²⁰⁾.

일본 복식의 기하학적 문양은 죠문(繩文)시대에서 헤이안(平安)시대 중기까지 토기와 패총, 토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²¹⁾. 기하학적 문양은 아르데코 작품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일본의 독특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주목되는 홋카이도(北海道) 지방의 아이누 일본 토착민의 모티프로써 전통적으로 단순한 사각 기모노에 체인 스티치 기법을 사용하였다²²⁾.

일본적인 자연풍경 문양의 특성은 회화적인 기법을 살려 복식 전체를 화폭으로 삼아 표현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본 복식 문양에 비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에도(江戸)시대 중기에 유젠염(友掬染)이

완성된 이후부터 자연 풍경 문양의 전성기를 맞이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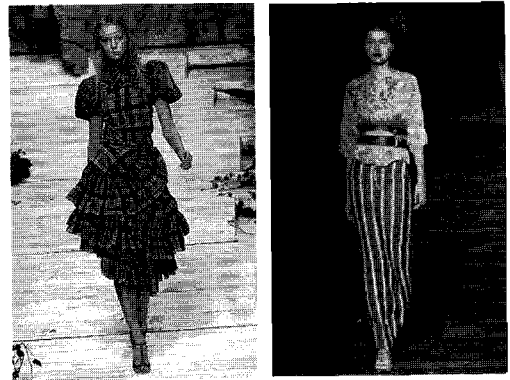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자연문양은 일본 복식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연을 그대로 표현한 문양은 거의 드물었지만, 파도나 구름문양, 물결문양을 형상화하여 기하학적이고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5>의 다케다 겐조(Takeda Kenzo) 작품에서는 스트라이프나 체크문양 등의 기하학 문양이 의복 전면에 표현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양의 구성에 있어서도 옷 전면에 걸쳐 분양을 장식하며 사방인속구성, 상하구성, 중앙구성, 대칭구성, 단계식 배치구성, 좌우 비대칭구성 등의 구성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드리반 노트(Dries Van Noten)의 작품에서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인체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비대칭 무늬를 사용하고 있다²⁴⁾(그림 16).

이렇듯 기모노는 단순한 의상 형태의 특징을 지니지만 기모노의 문양 구성 형식은 한 시대의 의상이 변화함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일본의 문양염의 종류는 교힐(絞纈), 운간염(暎



<그림 15> Takeda Kenzo (07 S/S, Seoul Collection). <그림 16> Dries Van Noten (06 S/S, www.firstview.com).

20) Alan, Kennedy, *Japanese Costume: History and Tradition*, (Paris: Adam Biro, 1990), p. 28.

21) Leonard Koren, *New Fashion in Japan*. (Tokyo: Kodansha, 1984), p. 79.

22) Leonard Koren, *Op. cit.*, p. 187.

23)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1998)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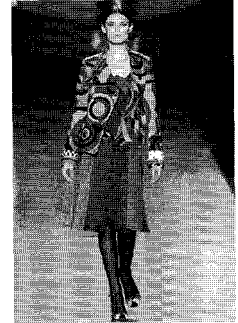
24) 北村哲郎, 著, *日本の文様1*, (東京: 源流社, 1988), p. 84.

縹染), 호염(糊染), 이카트(ikat), 자수(刺繡), 유젠염(友禪染) 등이 있다. <그림 17>의 다케다 겐조(Takeda Kenzo) 작품을 살펴보면 꽃문양을 단순화시켜 의상 전면에 배치하여 일본 특유의 문양 구성 방식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동양인의 감성이 깊게 드러나는 수복화와 같은 문양으로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것 또한 특징이다. 농목 문양에서는 문양을 단순화하여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18>의 하나에 모리(Hanae Mori)는 인공문양에서 사물문양인 부채를 모티프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림 19>에서 라거펠드(Lager Feld)는 벨트 부분에 기모노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문자문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직물의 주요한 문양은 중국의 모티프로부터

문양을 차용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²⁵⁾ 일본화 과정에서 특유의 것으로 전이되어 있는 문양은 전반적으로 단순롭기보다는 역동적이며 복잡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일본 복식에 표현된 문양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문양의 장식 표현기법에 있어 프린트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홀치기염(絞纈)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에서 에트로(Etro)는 현대 패션에서 일본 전통문양의 특징인 복합문양을 잘 살려 표현한 것으로 에스닉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의 문양은 복잡구조의 자연문양이 부분적으로 장식되었고, 줄무늬나 체크문양이 의복의 전면에 대담하게 표현되었으며, 문양이 복합적으로 현대 패션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Takeda Kenzo (05 F/W, www.firstview.com). <그림 18> Hanae Mori (99, 00 A/W Fashion News, Vol. 38, p. 125).

<그림 19> Lager Feld (02 S/S, Collezioni Donna Vol. 6, p. 32). <그림 20> Etro (05 F/W, www.firstview.com).

<표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과 일본의 조형적 요소

		한국	일본
디자인 요소	형태	심하 분리형, 구조적 곡선, 레이어드(Layered) 형태	오미(帯) 형태, 레이어드(Layered) 형태, 빅룩(Big Look) 형태
	색채	백색, 고명도, 고채도, 무채색, 보색 대비, 다색 대비	뉴트럴 컬러, 스펙색미, 무채색, 유사색의 조화
	소재 및 재질감	자연계 섬유, 명주, 촉감이 부드럽고 섬세한 감사, 노방 등 투명한 재질감 선호	자연계 섬유, 수직 실크, 투박하고, 양감이 있는 직물을 선호하고 다양한 직조법을 통해 풍부한 표면질감
	기법	자수, 금박, 패치워크(Patch work)	퀼팅(quilting), 패치워크(Patch work), 사시코(刺子)기술
	문양	자연문양, 가하히지 문양	자연문양, 인공문양, 복합문양

25) Leonard. Koren, *New Fashion in Japan*, (Tokyo: Kodansha, 1984), p. 125.

Ⅲ. 결 론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의 조형 요소가 현대 패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형태에 있어 한국 복식의 특징은 곡선적 이미지와 상하 분리형의 특징을 보였고, 일본 복식에 비해 구조적 형태와 단일착용이 많았다.

진태옥(Jintek)의 작품에서는 평면 분리형의 Part to whole의 표현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에서 치마, 저고리의 상하 분리형이 내재되어 작용하는 복식에서의 조형 감각으로 그 결과 평면 분리형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복식인 기모노(着物)는 남방(南方)의 개방적인 복식 형태의 의복으로 평면 재단과 상하 연결의 평면통합형이 특징적이었으며, 한국에 비해 비구조적 형태와 직선적인 라인·레이어드(Layered)·오비(帯)·빅룩(Big Look)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작품에서는 레이어드(Laycred)에 의한 착장법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Junko Koshino(준코 코사히노)는 오비(帯)를 기모노의 허리부분에 묶는 장식품의 하나로 의복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끈을 장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펜디(Fendi)의 롱코트는 기모노의 빅룩 형태로써 기모노의 깃, 소매와 크기와 길이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색채에 있어 한국은 백색을 선호하고 고명도, 고채도의 밝고 화사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임현희(Lim Hyun Hee)작품에서 나타나듯이 유사색과 보색의 조화 면에서 한국 디자이너 작품이 비교적 보색을 많이 사용하며 현대 패션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기초를 둔 드러내지 않는 절제를 소중히 하고 있으며 습색의 배색미와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의 가라앉은 느낌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브 생 로랑(YSL Rive Gauche)은 일본의 선호 색상인 검(紺)색 등을 사용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연색을 기조로 하여 차분한 색으로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재질감에 있어 한국 복식은 곱고 섬세한 옷감을 이상적으로 부광택의 직물을 사용하였고, 반면에 일본은 자연계의 섬유로 투박하고 양감이 있는 직물을 선호하며 다양한 직조법을 통해 풍부한 표면 질감을 현대 패션에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자연소재와 자연적인 색조를 많이 이용하였고, 마직물을 사용한 자연적인 재질감이 그대로 보이면서 형태보다 소재가 우선시 되는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넷째, 문양에서 한국은 꽃분양을 위주로 한 자연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을 자수와 금박,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다. 일본 전통 복식의 문양과 독특한 구성방식은 현대 패션에서 일본풍의 복식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문양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문양의 특징은 자연 소재를 문양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창출하였고, 문양을 단순화하여 여백의 미를 살리며 회화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문양(紋樣)을 단조롭기보다는 역동적이며 복잡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일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에트로(Etro)는 이와 같은 복합문양의 특징을 잘 살려 현대 패션에 표현한 것으로 에스닉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현대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조형적 특징들이 복식 형태의 새로운 미의식으로 작용하면서 현대 복식 조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순히 활용이라는 측면만이 아닌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형태에서 더욱 발전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세계 전통 복식에 나타나는 조형 요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희정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복식이 미지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 (1993). "우리나라 삼국시대 복식과 일본 복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 (1999). "한국 기본포와 일본 고소데에 관한 연구." 복식 43권 18호.
- 김영숙 (1988). "한국 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길자 (1987). "한국 전통직물의 섬유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광희 "일본의 服色에 있어서 청색과 藍染의 發達考." *동명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권.
- 박명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희 (1990).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성학회지* 28권 1호.
- 이상례 (1994).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숙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6권 1호.
- 장인우 (1999). "한국 현대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 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48권.
- 최세환 (1992).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吉岡徹 (1986). "和服における縮柄のイメ-ヅ." *H本家政學科誌* 37卷 12号.
- 北村哲郎.著 (1979). *日本服飾小辭典* (1). 東京: 源流社.
- 北村哲郎.著 (1988). *日本の文様* 2. 東京: 原流社.
- 北村哲郎.著 (1988). *日本の織物*. 東京: 原流社.
- 北村哲郎.著 (1988). *H本の染物*. 東京: 原流社.
- 松本包夫.著 (1984). *正倉院綴と飛鳥天平の染織*. 京都: 紫紅社.
- Kennedy, Alan (1990). *Japanese Costume: History and Tradition*. Paris: Adam Biro.
- Koren, Leonard (1984). *New Fashion in Japan*. Tokyo: Kodansha.
- Kennedy, Alan (1990). *Japanese Costume: History and Tradition*. Paris: Adam Biro.
- Scott, Philip (1993). *The Book of Silk*. London: Thames and Hudson.